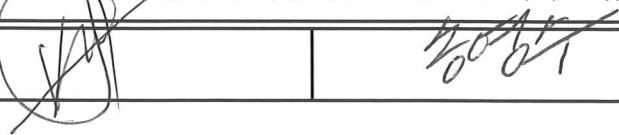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차 수 제 100 차
일 시	2022. 02. 08.(화) 16:00 ~ 17:30	장 소	본관 2층 회의실	
참석 평의원	이상혁, 송영수, 이재형, 권순석, 심숙현, 배규범, 장승완(7명)	불참 평의원	노병철, 전용한, 유만희, 조성규 (4명)	
배석	기획평가처장 김소형, 기획예산팀장 채두식	간사/서기	이성열 / 이채원	
<p><b>1. 성원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원보고(간사)</li> </ul> <p>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제7조(회의) 제3항에 의거, 평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p>				
<p><b>2. 개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선언 : 이상혁 의장</li> </ul>				
<p><b>3. 안건심의 및 의결사항</b>(진행 : 이상혁 의장)</p> <p><input type="checkbox"/> 제1호 학칙개정안(2023학년도 학과 구조혁신)</p>				
심의 및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자 : 기획평가처장 김소형</li> <li>○ 관련근거 : 학교법인상지학원 정관 제35조8(평의원회 기능) 및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제2조(기능) 제2호 학칙의 재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li> <li>○ 주요 보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학년도 학과 구조혁신의 주요내용, 기본방향, 구성원 의견수렴(경과), 심사결과 및 학과 의견서 내용에 대해 보고함</li> <li>- 학칙개정의 주요 내용은 2023학년도 상지대학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이며, 관련된 경과조치는 2022년 8월까지 학칙 반영이 필요, 첨단학과(90명) 반납에 따른 편입학 여석(1:2 비율적용 180명) 회수, 입시홍보 조기 진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를 보고함</li> </ul> </li> <li>○ 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규범 위원) 지금의 학칙 개정안은 교원의 편의에 따른 학사 구조혁신으로 생각됨. 학생 입장에서 학업을 지속하여야 하는지? 학과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됨. 학과 경쟁력과 통폐합(전공, 교육과정 변경 등)에 대해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문의함</li> <li>- (김소형 처장) 3월중 컨설팅에 따른 미래계획과 학과별 생존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및 교육과정 재정비를 추진 예정임. 트렉제 및 특성화 방향과 재정지원 관련 부분에서 모집단위가 없는 융복합계열 운영도 고려하고 있음</li> </ul> </li> </ul>			
				
<간서명>				배규범

# 상지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차 수

제 100차

일 시	2022. 02. 08.(화) 16:00 ~ 17:30	장 소	본관 2층 회의실
-			(심숙현 위원) 2022학년도 미달학과에 대한 중원 이유를 질의함
-			(김소형 처장) 재정적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고자 분산된 학과별 정원을 모으게 되었으며, 추후 입시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할 예정임
-			(이재형 위원) 학과 폐과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다양한 의견수렴 후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공정하지 않았다는 다수의 의견이 교수협의회에 접수되었다. 폐과 학과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함
-			(김소형 처장) 모두가 만족하는 구조혁신 방안은 없겠지만 특성화, 트렉제, 융복합 등 다양한 교과과정 운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이재형 위원) 융합전공, 다전공 학과들의 정원 미달이 우려되니 타대학 모범사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및 반영을 당부함
-			(이상혁 의장) 한국어교육학과 신설과 관련하여 폐과 학과와의 형평성과 정원 미달 시 대책을 질의함
-			(김소형 처장) 대외협력처 주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글로벌특성화 학과로 한국어 교사 양성, 외국인어학당 졸업 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입 학과 개념임을 설명함
-			(송영수 위원) 학사 구조혁신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알겠지만 진행상 아쉬움이 있음. 교과과정 개발,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면밀한 진행을 부탁하며, 학과별 50명 정원에 대해 2024년 입시에 성원할 수 있을지 질의함
-			(김소형 처장)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타대학 비교, RIS, LINK 사업과 연계한 교과과정 개발을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각과 피드백 등을 통하여 보완할 예정임
-			(권순석 위원) 학과 구조혁신의 절차적 적절성과 학과평가 근거, 감원에 따른 재정압박 심화에 대해 질의함
-			(김소형 처장) 모든 관련 규정을 정비 후 진행하게 되면 구조혁신의 시기를 실기할 가능성이 크며, 입학처의 2024년 신입생 모집에 대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여 총장님이 하관련 학과 및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진행하게 되었음. 재정압박에 대해서는 운영비 개선과 소규모 학과 학생들에 대한 전과 규정 완화를 통하여 학과별 적정규모화를 유도할 예정임. 학과평가 근거와 관련하여 구조혁신 기본방안(A·B그룹)에 대해 설명함.

<간서명>

- (이상혁 의장) 교원, 학생 모두 본인 학과를 폐과하여 대학이 산다면 감수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총학생회장의 발언처럼 학생들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교수님들이 살자고 만든 학사 구조개편에 교수로서 부끄러움을 느낌. 이번 구조혁신안과 관련하여 얼마나 생존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음. 12~1월은 입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데 구조혁신에 바빠 구성원들이 입시에 신경쓰지 못하였음. 이는 본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평의원, 교협, 노조, 총학의 실수이기도 함. 지난 2022년 구조혁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이번 2023년 구조혁신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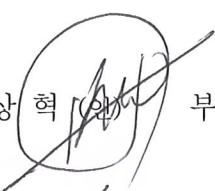
>>의결사항 : 학칙개정안(2023학년도 학과 구조혁신)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심의함.

#### 4. 폐회

- 폐회선언 : 이상혁 의장

학 인

의 장 : 이 상 혁



부의장 : 송 영 수



평의원 : 이 재 형



평의원 : 권 순 석



평의원 : 심 숙 현



평의원 : 배 규 범



평의원 : 장 승 완

